

## 죄인과 화목제물

### 롬 3:25~31

#### 죄와 수치심

특별한 악인이 아닌 한 보통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특별한 예외는 있습니다. 악인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이 악을 전공인 것처럼 아주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죄가 내 안에서 생기기 전이나 생겼다 하더라도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떳떳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밝습니다. 순수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상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마음속에 죄가 발생이 되었거나 그 죄가 몸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죄와 부끄러움의 관계는 이상한 관계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별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별거벗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수치감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이런 수치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정서 체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치감입니다. 죄와 수치감은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수치감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왠지 부끄러워집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밝던 얼굴이 그늘이 집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와라는 여인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지 제가 언제 하와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 죄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게 만드시지 왜 죄를 짓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나를 죄 안 짓도록 만드셨으면 제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죄란 책임전가입니다. 죄는 변명을 합니다. 죄는 도피를 하게 합니다. 죄를 숨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죄의 현상입니다. 죄를 지으면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지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명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죄를 인정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면 이론을 만듭니다. 이론을 만들지 못하면 미쳐 버립니다. 이론 속에 자신이 숨어서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 죄를 드러내는 율법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일단 발생하면 속에 있던지 몸 밖으로 나왔던지 간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

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발생한 죄는 어딘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나타납니다. 서서히 그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이 초기 때에는 그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 병균이 없어지지 않는 한 더욱 강하게 그 영향력을 몸에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인격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영성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도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 서서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어둠 속에 감추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무슨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지 못합니다. 한참 어둠에 익숙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죄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나도 잘못했지 라며 조금씩 인정합니다. 그 때 누군가가 전깃불을 확 켜줍니다.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들을 환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드러나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것까지 다 드러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예전에는 죄인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떳떳했던 사람들이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예전에는 핏대를 세우고 주장이 많았던 사람들이 빛을 만나면, 율법을 만나면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어둠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나게 할뿐이지 죄를 치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방에 더러운 물건들이 있는데 어두울 때는 모르지만 불을 켜면 그 더러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불을 켜다고 해서 그 어두움들이 더러운 물건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물건들이 사라지게 하려면 누군가 그 더러운 물건들을 치워야 합니다. 청소를 하고 약을 뿌려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했다고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을 말할 뿐이지 그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없어지려면 수술을 하던지 약을 먹던지 간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어둠 속에 갇혀있습니다. 빙산에 일각처럼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 오면, 말씀이 오면, 율법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치울 능력이 없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우리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청소해 줄 수 있고, 우리 병을 고쳐 줄 수 있는, 우리의 환부를 수술해서 고름을 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한 의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한 의인 것입니다.

### 하나님의 의 - 구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죄를 환히 볼 수 있도록,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인 줄 모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적극적으로 치우도록 죄를 제거하도록 하나님

은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23~24절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앞에 변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러곤 그것을 신문지로 덮어놨습니다. 주변에 가는 사람이 이상한 냄새가 나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변갈다, 아니다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춰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들춰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다가 변을 보았는가? 한 시간 전에 김집사가 여기에 온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화를 냅니다. 서로를 향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냄새만 날 뿐입니다. 이것이 변인가 아닌가 세미나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일정을 잡고 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누군가 빨리 치워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죄를 가지고 세미나를 해 보아야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심리학적인 현상이며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도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죄는 치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대신 그 죄 값을 치러 준 것’이란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1백만원 빚을 지고 잡혔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1백만원을 주고 그 빚을 갚고 그 아들을 데려옵니다. 이와 같이 죄 값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나를 위해 지금 누군가가 와서 이 죄 값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속전을 해주신 것입니다. 대신 돈을 내 주고 구해 주신 것입니다. 죄 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 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은 심판을 받는 길 밖에 없습니다. 사막에서 탈진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선을 행해 봐도 방법이 없고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자기 죄 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인류의 모든 성자들과 종교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그들이 덜 선하거나 행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절대 조건은 구하는 사람이 의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 피 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남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분이려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동정녀를 통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었다면 그분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내 죄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예수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핵심 진리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 말로 하시지 않았습디다. 생각으로 하지 않았습디다. 돈을 주어서 하지 않았습디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몸으로 하시는 것입디다.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것입디다.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디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디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한 마디만 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디다. 몸이 죽어야 합디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디다. 그 까닭은 무엇입디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가 없습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디다.

어떤 사람이 빛을 족습디다. 그 사람이 그냥 한번 봐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빛이 청산 됩디까?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합디다. 무엇인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합디다. 그것을 제물이라 합디다.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속전이 되신 것입디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디다. 화목제물은 주는 것입디다.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대신 죽이는 것입디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됩디다. 대신 죽어야 효과가 있는 것입디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인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 한 사람도 없습디다. 인류역사상 죄인이 아닌 분은 한 분이였습디다.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할 수 있는 분이십디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디다.

### 제물의 두 가지 조건

제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디다. 25절에 나옵디다.

첫째는 ‘그 피로 인하여’입디다. 피입디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얻었네라는 찬송을 수없이 해 왔습디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이상하게 힘이 솟습디다. 예수님의 피와 관련한 찬송가를 부르면 귀신이 떠납디다. 이런 찬송가는 성령과 관련이 있습디다. 예수님의 피와 관련된 찬송가를 부르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디다. 이것이 피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입디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입디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디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흐려질 때 그 죄가 용서됩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디다. 그 피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될 것입디다.

피를 흘려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디까? 피는 구약에서는 생명을 의미합디다. 피 채로 먹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디다. 피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집디다. 피는 죽음을 의미합디다. 예수가 죽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디다. 이 피는 우리 죄를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디다. 소나 염소의 피는 안 됩디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 없는 자의 피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한 사람만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때만 효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이 피가 뿌려진 자에게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는 뿌려져야 합니다. 몸에 수혈이 되어야 합니다. 수혈이 되어야만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뿌려져야 합니다.

화목제물의 두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피가 내게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더러운 귀신과 어두움 세력들이 침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뿌려졌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만 그 피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믿음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때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 피뿌림의 의미

이렇게 화목제물의 두 가지 조건은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피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통과하신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같이 지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기억도 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빼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한다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감격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죄의 충격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큰 죄가 피뿌림으로 용서받고 다 없어졌다는 말에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못 믿는 인간들을 위해 성경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죄가 이렇게 없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환상의 고통을 줍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다리를 자른 사람이 아직도 발가락이 아픈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한 번 만져 봅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습니다. 이 때 환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다 제거되었는데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죄는 용서가 되었지만...”이라고 합니다. 용서가 안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회개기도의 보따리를 풀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보따리를 싸서 가지고 갑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헛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구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자는 자신 때문에 자꾸 보상 행위를 합니다. “그래, 구원받으려면 전도는 10명 정도는 해야지. 성경은 20번 정도는 읽어야지.”하며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보상행위를 시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1백만원 내라.”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한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은 가지려고 합니다. 일종의 자기 학대입니다. 자꾸 자기가 보상행위를 합니다. 많은 종교가 이런 보상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보상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자기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내 이성이나 상식으로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됩니다. 믿고 싶은 마음은 내게 있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절망 없이 구원의 시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었을 때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의지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송구한 마음,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장보다는 순종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며 좌절과 절망에서 얻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받습니다. 29~30절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변함이 없는 한분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서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 율법을 폐합니까? 성경은 믿음이 율법과 모순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율법은 상호보완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환상고통에서 해방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